

# 2001년 낙농육우산업 결산



김인식  
분회 전무이사

지난 한해동안 낙농육우산업은 비교적 안정된 분위기로 지내왔다.

우유수급의 문제도 크게 드러내지 않았고, 소값 역시 크게 올라 그런대로 한해를 무난히 넘길 수 있었다. 다만, 원유가 체계개선과 관련한 낙농가 내부의 의견이 분분하였는가 하면 원유가 결정근거가 될 수 있는 생산비 조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채 해를 넘기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낙농육우산업은 비교적 안정된 분위기로 지내왔다.

우유수급의 문제도 크게 드러내지 않았고, 소값 역시 크게 올라 그런대로 한해를 무난히 넘길 수 있었다. 다만, 원유가 체계개선과 관련한 낙농가 내부의 의견이 분분하였는가 하면 원유가 결정근거가 될 수 있는 생산비 조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채 해를 넘기고 있다.

낙농주변여건이 WTO 재협상과 FTA 추진 등으로 위기를 예감하는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도 크게 동요됨이 없었다. 개별목장에다 경영규모를 가족단위 노동력 활용단위로 최대한 늘려 대비하는 분위기가 가속되고 있다. 낙농업은 농업중 비교적 안정토대 위에서 한해를 마감하고 있어 역시 낙농업의 선진적 면모를 실감케 하고 있다.

## 원유가 결정체계 개선에 이견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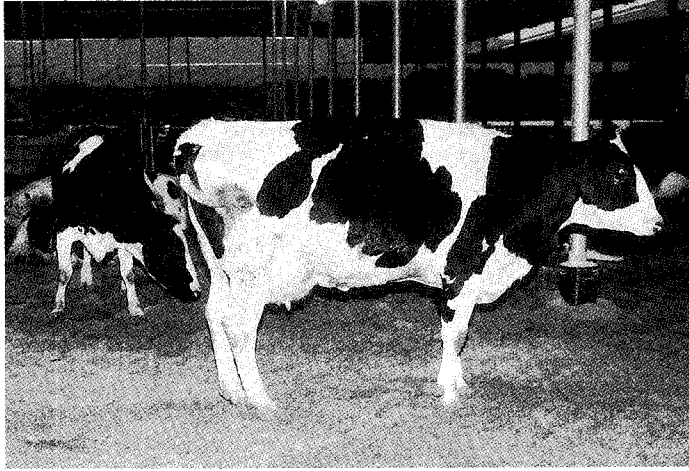
올 한해 낙농내부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 것을 역시 원유가 개선체계와 관련된 논쟁일 것이다. 당초 낙농진흥회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발표된 내용에 대한 반응이 각기 달리 제기되었다.

이에 낙농진흥회에서 상당수준의 조정된 내용으로 개선체계를 제안하여 6월 12일에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낙농가의 저지로 무산되고 말았다.

공청회 무산이후 낙농진흥회는 나름대로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정된 의견을 토대로 2차공청회를 대전에서 개최하였으나 역시 낙농가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체세포 등급기준이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엄격하고, 페널티 역시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 주된 요지이다.

'93년도부터 실시해온 원유가격차등화 결과 체세포의 개선은 커녕 오히려 점점 어렵게 되고있는데도 제대로 반영조차 못

하고 있다는 불만인 것이다. '93년 6월 차등화 실시 초기에, 세포수 10만미만 등급은 26.7%이었으나 '00년에는 90.1%로 발전된 데 비해, 체세포수 1등급은 '93년 6월당시 30.0%이었으



나 '00년도에는 오히려 21.0%로 줄어들어 개선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요지이다.

체세포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선진국 수준이상으로 강화하여 낙농가의 어려움과 피해만 가중시켰다는 불멘소리가 터져나온 것이다.

물론 1등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kg당 60원으로 제시한데 대해 찬성하는 농가도 많고, 페널티를 낮추라는 농가의 요구에 오히려 불만을 터뜨리는 입장도 분명히 있다. 문제는 유업체로부터 받는 유대의 합계는 같으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자면 의견접근과 양보가 우선되어야 가능해 지므로 단순하지 않다는 정도다. 체세포 뿐만 아니라 지방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선진국이 한결같이 저지방유 추세이고 소비자들의 요구 또한 저지방을 선호하는 경향임에도 지방중심가격체제로 인해 엄청나게 높아진 지방율을 새로운 가

격체계에 맞추는데는 문제가 적지 않다. 우선 4.0이상 고지방 생산농가들의 유대 감소에 따른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제도로 개선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유대가 낮게되는 결과에는 쉽게 승복하기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지방은 낮추어야하고 낮추어지는 가격 비중만큼 체세포수에 있어 주자는 것이 기본요지이지만 1만3천 낙농가에 입장이 체세포 등급분류만큼 달리 나타나므로 단순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11월 30일의 3번째 공청회에서 그동안 조율된 방안이 제안되었고, 당일 각기 달리 제기된 낙농가의 주장을 토대로 향후 원유가 체계가 개선되게 되었다. 가격체계개선이 낙농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에도 끊임없는 토론과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 원유생산비조서의 문제점 부각

원유생산비조서는 당초 축협중앙회가 맡아 오던 것을 '98년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었다.

농관원이 맡아 생산비를 조사하면서 나온 결과가 낙농가들이 납득

되지 않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98년도 원유생산비는 kg당 500원인데 비해 '99년도는 422원이고 15.6%나 인하되었다는 것이다. '00년 역시 423원으로 발표되어 원유가 인하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농관원의 원유생산비 인하결과는 낙농진흥회에서 한국유가공협회측으로부터 원유가 인하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낙농진흥회는 국가기관이 원유생산비를 조사한 결과가 5%이상의 변동폭이 있을 때 조정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회 총회나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유가협회에서 원유가 인하주장을 제기하였고, 우리 협회와의 마찰이 야기되었다. 문제는 농관원의 조사결과와 신뢰성 문제이다.

과연, 농관원의 조사결과대로 15%정도의 원유가를 인하시킬 요인이 있느냐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농관원 전국 224농가를 표본조사 하여 나온 결과라고 강변한다. 농관원의 주장과 조사



결과는 몇 가지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선, 표본조사에 대한 문제이다.

전국 224낙농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한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지도하고 관리하여 생산비 기록을 정확히 하느냐의 문제이다. 낙농가가 기억나는 것만 기록하거나 누락항목여부에 대해 확인 과정을 거치거나 보정을 해주느냐이다. 현재까지 조사대상농가들이 알려진 바로는 철저한 점검 과정이 없고 올바른 기장지도가 없다고 한다.

만약, 부정확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원유가 조성자료로 인용된다면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 문제에 있어 최소한 낙농가의 책임도 있다. 조사대상 224농가가 협회에 협조하여 바른 기장방법을 숙지하여야 함에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농관원의 생산비 책정기준에 문제가 있다. 자가노임 적용에 있어 목부노임과 동등하게 적

용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목장주노임을 목부노임과 동등시한다면 동의할 낙농가가 과연 있는가 농관원에 묻고 싶다. 오죽했으면 농관원의 월급을 농관원 수위월급과 같이 받고 있는지를 반문했겠는가, 이미 일본 등 선진 낙농국들은 목장주 급여를 일반산업 임금으로 적용시켜 모순을 최소화 해주고 있다.

두당노동시간 역시 농관원이 말고 난 이후 급격히 줄어 거의 절반수준이다. '97년 207.8시간에서 '00년은 92.01시간으로 준 것이 기계화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우리보다 더 기계화된 일본의 경우도 젖소 두당 연간 소유되는 노동시간은 114.10(2000년현재) 시간으로 우리보다 높다. 낙농가들이 직접 젖소와 관련한 노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영주의 경우 각종 교육, 나들이, 계획설정 및 고민하는 시간을 일정부분은 노동으로 명시되어야 하나 생

략되어 있다. 목장주치고 목장에서 노동에만 시간 할애하는 경우 못지 않게 경영개선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 구상, 타목장의 경영사례를 기준으로 개선시키려는 각종 정신적 노력이 있기 마련이다. 농관원이 무관심한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농기구 등의 경우 잔존율이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미 낙농가들이 224농가 명단을 요청 중에 있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놓고 있는 터이다. 농관원이 조속히 조사방법을 개선하고 낙농가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 우유수급안정과 소값상승

우유수급이 안정되었다는 것이 한해 결산의 가장 무난한 성과라 여겨지고 있다. 낙농경영 제도가 갈수록 전업화되면서 두당산유량도 늘고 호당납유량도 늘어 전체 생산량 역시 늘고 있다. 대다수 낙농가들이 가족규모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육규모를 유지하면서 호당 평균 유량도 500kg 수준에 도달되고 있다.

젖소 사육두수는 큰 변화 없이도 개량을 통한 경영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생산된 원유를 전량 소비되도록 해야 하는데, 소비량 역시 착실히 증가하고 있다. 10말 월 현재8개 주요업체 원

유생산량은 4,798톤으로 전년대비 15%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8개 주요업체의 소비량은 4,782톤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현상을 나타내고있다.

물론 여기에는 낙농진흥회를 통한 재고분유 처분조치와 낙농자조금의 소비촉진효과, 각 유업체의 판촉활동, 경기회복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유를 홍보하는 지속적인 노력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쌀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올 가을 벼수매를 둘러싸고 농민과 정부와 농협과의 끊임없는 마찰과 갈등을 지켜본 입장에서 새삼 낙농현실을 자각케 해준다.

따라서 국내 생산원유를 국내 시장에서 제때에 전량 소비하지 못하는 즉, 재고분유 문제를 비수기마다 반복해야 우리 현실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에 초점이 모아져야 하고, 소비홍보는 지속되어야 한다.

다행히 소값 또한 인상되어 낙농가 어려움을 크게 덜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1,339천원이던 수송아지가 11월말 현재 2,182천원으로 63%나 뛰었고, 500kg기준 육우는 1,541원에서 2,578원으로 67%이 올랐다. 한우값 상승에 힘입어 육우나 젓소가격 역시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국내에 공급되는 소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입되는 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소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물론, 소값이 무한정 오르는 것만 기뻐할 일은 아니다.

지나친 소값 상승은 소비자로서 하여금 값싼 수입육 선호현상을 야기시켜 결과적으로 입맛을 변화시키는 효과만 초래할 수 있다. 값싼 수입육에 입맛이 길들여지면 우리고기보다는 수입육으로 소비패턴이 변화되는 위험이 따르게 될 것이다. 문제는 소값을 상승세에서 어떻게 지속시킬 것이냐에 모아져야 한다. 다행히 협회 내에 육우분과위원회가 결성되어 향후 육우농가들이 주도적인 활동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우농가모임은 6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겸한 단합대회가 있었고, 흔쾌히 육우분과위 결성에 참가자 모두가 동의하였다. 육우농가들은 육질개선에 관한 기술적인 토론회 개최는 물론 농업인의 날 행사장인 마사회에서 육우시식회를 개최하여 소비자의 찬사를 받았다. 육우고기가 결코 우리입맛에 외면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시켰다. 오히려 값싸고 맛있는 육우고기

를 적극 판매하여 소비자가 쉽게 찾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쇄도하였다.

따라서 향후 육우농가들이 육우분과위 가입을 추진하여 육우농가 스스로 협회를 중심으로 대처해가도록 하는 과제를 안고있다고 본다. 육질개선과 소비홍보, 그리고 재값 받기 운동이 육우농가의 과제이고, 육우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과제일 것이다.

## 한·칠레 FTA저지 및 WTO 재협상

올 한해 농업계최대의 화제는 역시 WTO협상개최와 쌀 수매문제였다고 본다. WTO 재협상으로 2005년부터 낙농을 비롯한 농업계의 일대개편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UR협상으로 2004년까지 10년간 지속된 개방문제가 2005년부터 다시 추가 개방을 위한 관세를 낮추는 한편 국내 보조를 더 삭감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물론 UR협상으로 이미 쌀을 제외하고는 완전 개방되어있고 관세

지나친 소값 상승은 소비자로서 하여금 값싼 수입육 선호현상을 야기시켜 결과적으로 입맛을 변화시키는 효과만 초래할 수 있다. 값싼 수입육에 입맛이 길들여지면 우리고기보다는 수입육으로 소비패턴이 변화되는 위험이 따르게 될 것이다.

문제는 소값을 상승세에서 어떻게 지속시킬 것이냐에 모아져야 한다.

육도 대폭 낮추어진 상태이지만, 다시 추가로 수출국 요구를 들어 주는 협상이 바로 WTO재협상인 것이다. '99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재협상을 위한 소위 뉴라운드가 시도되었으나, 세계의 민간단체 즉 NGO들이 모여 저지시킨바 있다. 당시 협회장을 비롯한 농업계 대표 30여명이 시애틀로 날아가 활동한 바 있다.

그 후 다시 올 11월에 카타르 도하에 세계 142개국 WTO회원국 대표들이 모였고 각국 회담을 개최하여 중국과 대만을 가입시키면서 새로운 협상 즉, 도하라운드를 만들어 내었다. 그 결과 국내보조금과 수출 보조금의 감축, 관세율인하를 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 주도의 협상이고, 한국이 가장 예상피해가 큰 나라이다. 우리 낙농분야에서는 이미 모든 품목이 완전개방 되어 있고, 전지분유와 탈지분유만 UR 당시 215.6%의 고율 관세로 되어 있었는데, 그 관세율 역시 매년 낮아져 '04년 176%로 되어 있다.

따라서 WTO실무협상 결과에 따라 분유 관세율 인하 폭이 결정되어지고, 국내 낙농에 위협신호가 전해지게 된다. 값싼 분유가 값싼 관세율로 국내에 자유수입 될 경우 대비책 없이는 참으로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그동안 WTO협상에 대

해 협회에서는 타 농민단체들과 힘을 모아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해 왔었다. WTO국민연대 활동, 농단협 활동등 공동대응 활동으로 정부와 국회, 정당, 국민에게 끊임없이 여론은 조성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하여 왔다.

특히, 정부가 한·칠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추진하여 이를 저지시키는 노력에 집중하여 왔다. 여야정당 대표면담, 국회의원 면담, 공청회개최, 정부대표와의 토론, 국민여론 형성 및 홍보와 활동으로 일단 한·칠레 FTA 추진은 저지시켰다. 자유무역협정은 글자 그대로 무관세 자유무역이 원칙이므로 국내 농업을 상대국에 내어주자는 협상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자유무역으로 이득을 얻는 공산품 생산의 기업들은 끊임없이 FTA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한·뉴FTA·한·미FTA까지 계속 논의되고 있어 협회의 과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새해로 숙제를 남기고 있다.

### 낙농자조금사업의 정착과 낙농가단합

낙농자조금사업은 99년 실시 이래 좋은 성과를 얻어 낙농가들의 공동사업으로 정착되고 있다. 비단 낙농가 뿐만 아니라 농업계에서 낙농자조금이 성공모델로 부각될 만큼 낙농가의 자존심을 지키는 사업이기도 하

다. 자조금 하면 얼른 낙농자조금을 떠올리게 하고 낙농가의 단합을 과시하는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처음 시작하는 해에는 농가 홍보에 치우쳐 필요성을 역설하는데 치중하였다면 이제는 성과 중심으로 농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낙농가 스스로 돈을 내는 사업이기에 농가가 판단하여 필요성을 느낀다면 거부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첫해와 지난해 사업결과가 낙농가 판단에 자신을 갖도록 해주었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는 1원당 24원의 직간접 이익이 있었다. 1원 투자하여 24원의 이익이 생겨날 만큼 사업효과가 있다면 설득력 있고 명분 있는 사업이다. 주로 TV·라디오 등 홍보효과가 가장 큰 방송매체 중시의 광고로 홍보에 치중하였다.

특히, TV광고료가 지나치게 비싼 점을 감안하여 공익캠페인 형식을 벌였고, 다행히 TV방송사가 낙농가의 어려움을 심분 이해하여 협조 해준 터에 값싸게 광고할 수 있었다. SBS TV와 SBS 스포츠 TV, MBC TV, KBS TV 등 국내 지상파 방송사가 협조하여 가능하였다.

약 45초 광고에 약500만원 전후의 파격적인 광고료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광고기법이라고 본다. 입시에 지친 청소년

년들의 심리에 초점을 두어 홍보하였고, TV광고는 적중하였다. 광고 배경음악 화이트러브(White Love)송 악보를 요청하는 문의가 청소년들로부터 쇠도하는 것만 보아도 큰 반향이 있다고 본다.

물론 구체적인 광고성과는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추후보고 될 것이다. 원유 kg당 1원의 자조금으로 낙농을 지키자는 슬로건에 80%의 낙농가들이 동참하였고, 낙농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모습에 농축산업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우리 낙농가의 높은 수준과 긍지를 느끼게 한다.

다만 불참20%의 농가를 어떻게 설득하고 동참시키느냐는 것을 과제로 넘기고 있다. 최선을 다해 이해시키고 함께 단합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에 분노처리 문제의 강화방침을 스스로 위생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으로 완화시키고, 자급조사료를 증산시키는 정책을 유도해 내었는가 하면, 육우거세우 장려금 제도를 마련토록 하였고, 쇠고기 동시판매점 허용에 따른 대책 마련활동, 외국의 규제역 및 BSE(광우병) 발병에 따른 대책마련, 축산박람회 개최 등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특히, 내부단합 강화를 통한 활용방안으로 청년분과의 결성과 여성분과위, 육우분과위를 결성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기술강습회와 순회강습회 등 농가 여론수렴을 통한 활용목표도 민주적으로 설정해 나갈 예정이다.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내면서 협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단합하고 힘을 모아준 낙농가와 지도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는 바이다. 협회는 회원의 조직이고 회원을 위해 결성된 만큼 회원중심의 활동으로 더큰 성과가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필자연락처 : 02-588-7055)

## 회비를 납부하여 우리의 책임을 다 합시다.

우리협회는 낙농육우농가의 권익대변과 낙농육우산업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지만 협회활동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회비납부를 통한 재원조달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협회가 보다 강력한 활동으로 회원의 대변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모든 낙농육우농가가 협회로 단합하는 길이며 이는 회원가입으로 가능합니다.

전국의 낙농육우농가들께서는 협회비 3만원을 납부하시어 협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社團 法人 韓國酪農肉牛協會